

도심 복판 공사장 안전불감증 '심각'

현장출동 | 하수관로 공사 남구 푸른길 공원 가보니

인도 주변엔 공사 자재들 방치 시민 불안 안전 헬스도 없어...시 "공기 단축에 최선"

"밤이 되면 공사 현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사실상 우범지대나 다름 없습니다."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남구 푸른길 공원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특히 남광주농협 인근 버스정류장은 공사 현장과 인도를 분리하는 헬스도 설치돼 있지 않을 뿐더러 주변에 자재들이 널부러져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8일 오전 광주 남구 주월동 푸른길 공원.

공원의 대표적공원으로 알려진 푸른길 공원 인근에 하수관로 개선사업이 한창이다.

남구청 맞은편에서 푸른길 공원으로 진입하는 인도에는 '하수관로 개선사

업'을 알리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그 주변으로 공원 출입을 금지하는 안전 통제선도 설치돼 있다.

공원 진입로가 막힌 뒤 차도와 인근 상가·주택 등과 연결하는 보행로가 공사 현장 곳곳에 설치돼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었다.

문제는 버스정류장 인근 인도다.

남광주농협 버스정류장 인근 공사 현장에는 안전 통제선 두 줄만 설치돼 있을 뿐 인도와 공사 현장을 분리하는 헬스는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공사 현장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인도 주변에는 철근 등 공사 자재들이 널부러져 있으며, 철근, 파이프 등 자재들 사실상 방치돼 있다.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공사가 지난 5월부터 시작됐는데 주변에 안전 헬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8일 오전 남구 푸른길 공원 인근 '하수관로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 안전 헬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밤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 흡연은 물론 자재 관리도 엉망이어서 언제 안전 사고가 발생 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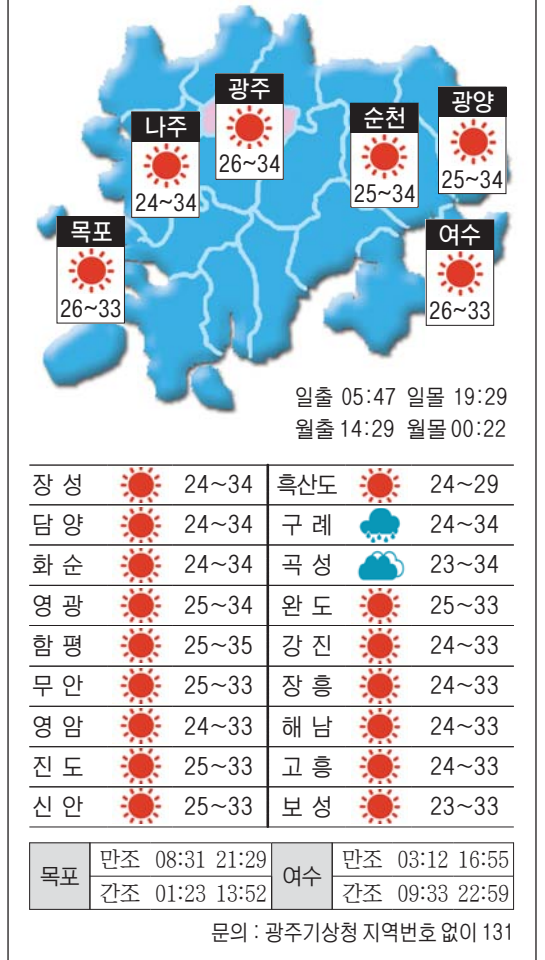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공사 특

성상 현재 설치된 인도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중장비 등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에 예로 사량이 많다"며 "현장 관계자들이 상주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버스 정류장 인근 현장도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 조치를 할 예정이다"며 "최대한 공사 시기를 단축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전남 폭염 피해 속출

온열 환자 150여명...가축 폐사도 잇따라

광주와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 11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3개 시·군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다.

전남지역에서도 지난 7일 온열질환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 하는 등 무더위로 인한 피해도 속출했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광주·곡성·함평에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제외)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 기온이 이를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진다. 낮 동안 온도가 밤까지 떨어지지 않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다.

전남에서는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

자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오후 8시 37분께 보성군 미력면 들녘에서 낮부터 발달하던 백모씨(77·여)가 탈진으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백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름 더위가 시작한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에서 26명, 전남에서 131명(사망 1명 포함)의 더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가축도 피해를 입어 지난 6일 오후 3시 기준 전남 240농가에서 16만2,197마리의 닭·오리·돼지가 더위로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바닷물도 달아올라 전남 함평만 해역에 올해 첫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같은 무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종찬 기자

"춤 허용 조례 의혹 엄정 수사" 촉구

참여자치21, 주류업계 로비 제기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상무지구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 시민단체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8일 성명을 내고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한 배경에 주류 유통업계의 전방위적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경찰은 이러한 주류 유통업계의 로비

의혹을 엄정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실제 조례가 제정된 서구와 북구뿐만 아니라 동구의회까지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수사를 확대해 유착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불법 증축된 클럽 붕괴

구조물이 무너지며 사상자를 낸 해당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춤 허용한 조례'의 혜택을 받아 이른바 '감정주점'으로 운영돼 왔다.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광주 서구의회만 신규 업소보다 기존 업소에 유리한 조항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최근엔 지역 주류업계가 서구의회를 비롯 북구, 동구의회 의원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나라 기자

아들 통해 단속 정보 유출 경찰관 기소

현직 경찰관이 아들을 통해 불법 오라실 단속 정보를 유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목포경찰서 강력팀장 A씨를 공무원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아들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목포지역 불법 오락실에 대한 경찰 단속 내용을 아들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들은 가요주점을 운영하며 성

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A씨 아들은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는 성인용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 주며 성인용 오락실 3곳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전남서 올해 첫 패혈증 사망자 발생

전남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사망환자가 발생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순천 A씨(59·여)씨는 병원체 검사결과 이날 비브리오패혈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뇨와 간경화를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2일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으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증상이 악화돼 지난 3일 광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지난 5일 숨을 거두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뒤늦게 비브리오패혈증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무엇을 먹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출소 이틀 만에 금품 절도 2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심야 시간에 주차 차량과 식당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2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40분께 서구 치평동 한 식당에 들어가 현금 8만원을 훔치는 등 9차례에 걸쳐 총 18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를 틈타 문이 열려 있는 차량 또는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 등지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절도 혐의로 1년 간 복역한 뒤 지난달 15일 출소했으며, 생활비·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지역 모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김종찬 기자

공기청정기 전문 대표기업 DK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는 물론, 탈취까지 환경에 맞춰 진화한다

mini air

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플라즈마 더블케어로 한번 더!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형, 중형, 대형 공기청정기 제조 및 A/S | 문의 1544-1154 | www.e-dk.co.kr